

청년 고용과 일자리 이행

2021년 11월 19일
남재욱(한국직업능력연구원)





1. 연구의 목적과 방향
2. 조사대상자 개요
3. 청년고용과 이행
4. 청년의 불안정
5. 코로나19와 청년
6. 소결

연구의 목적과 방향

청년의 고용과 일자리 이행 분석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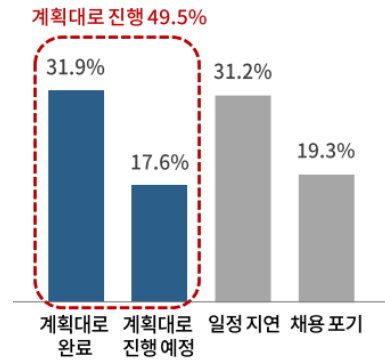
- ✓ 청년정책의 중심: (과거) 취업/일자리 → (최근) 청년 욕구의 다차원성/복잡성
- ✓ 청년의 고용과 일자리의 의미: 청년 공통의 욕구로서의 '이행(transition)'에 주목할 필요
- ✓ 노동시장 이행이 청년 이행의 전부가 아니고, 이행이 청년 욕구의 전부가 아니지만 청년의 다른 여러 욕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문제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
- ✓ 특히 코로나19 위기는 청년의 이행지체와 이행기 빈곤 및 불평등, 마음건강 문제를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

<코로나19 위기의 특성과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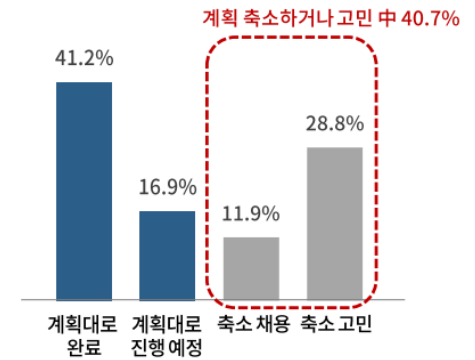
- 1) 경기위축으로 인한 이행기회 감소와 이행지체
- 2) 대면서비스업 위축으로 인한 이행기 소득원 감소
- 3) '언택트'와 '단절'로 인해 증가하는 마음건강의 위기
- 4) '잃어버린 세대'로서의 '코로나19 세대'의 가능성

[2020년 국내기업 301개사의 채용일정 및 규모]

채용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했는지?



채용 규모는 계획대로 진행했는지?



*기타/무응답 1.2%

자료: 대한상공회의소(2020: 5)

연구의 목적과 방향

- 청년의 고용과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하였음
 - ✓ 청년의 고용과 이행에 미치는 요인 파악을 위해 (1) 진입단계 영향요인(NEET 결정요인), (2) 진입 이후 만족도 영향요인, (3) 노동시장 정착과정에 대한 요인(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 청년의 불안정에 대한 분석을 위해 청년 스스로 생각하는 '삶의 안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
 - ✓ 코로나19가 청년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1)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및 소득 측면의 부정적 영향이 어떤 청년들에게 더 많이 나타났는지 분석하고, (2) 청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



조사대상자 개요

WRRO

조사대상자 개요

■ 조사대상자 개요 (서울청년패널)

- ✓ 서울 거주 18~34세 청년 5,408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
- ✓ 부모동거: 63.0%, 1인 가구 19.6%
- ✓ 경제활동 참여: 72.5%
(취업 65.7% + 실업 6.8%)
- ✓ 본인소득: 100만원 미만 36.2%, 100~300만원 42.5%, 300만원 이상 20.3%
- ✓ 주관적 계층의식: 상 26.1%, 중 42.2%, 하 31.7%

구분		빈도	비율	
전 체		5,408	100.0	
서울 거주 이력	서울 태생	3,628	67.1	
	서울로 이주	1,780	32.9	
주거 점유 형태	자가	2,714	50.2	
	전세	1,654	30.6	
	월세/기타	1,040	19.2	
가구 유형	1인가구	1,057	19.6	
	청년 부부가구(자녀없음)	291	5.4	
	청년 부부가구(자녀있음)	366	6.8	
	부모동거 청년	3,407	63.0	
	기타 청년가구	287	5.3	
경제활동 상태 ¹⁾	경제활동	취업	3,552	65.7
		실업	369	6.8
	비경제활동	재학생	1,006	18.6
		비재학 미취업자	480	8.9
본인 소득 유무	없음	890	16.5	
	있음	4,518	83.6	
본인 소득	50만 원 미만	1,297	24.0	
	50~100만 원 미만	660	12.2	
	100~200만 원 미만	873	16.2	
	200~300만 원 미만	1,478	27.3	
	300~400만 원 미만	743	13.7	
	400만 원 이상	357	6.6	
부채 유무	부채 없음	4,059	75.1	
	부채 있음	1,349	24.9	
본인 부채 규모 (부채 있는 경우)	500만 원 미만	288	21.4	
	500~1,000만 원 미만	209	15.5	
	1,000~5,000만 원 미만	353	26.2	
	5,000~1억원 미만	194	14.4	
	1억원 이상	305	22.6	
주관적 계층의식	상	1,411	26.1	
	중	2,284	42.2	
	하	1,712	31.7	

조사대상자 개요

고용보조지표 및 니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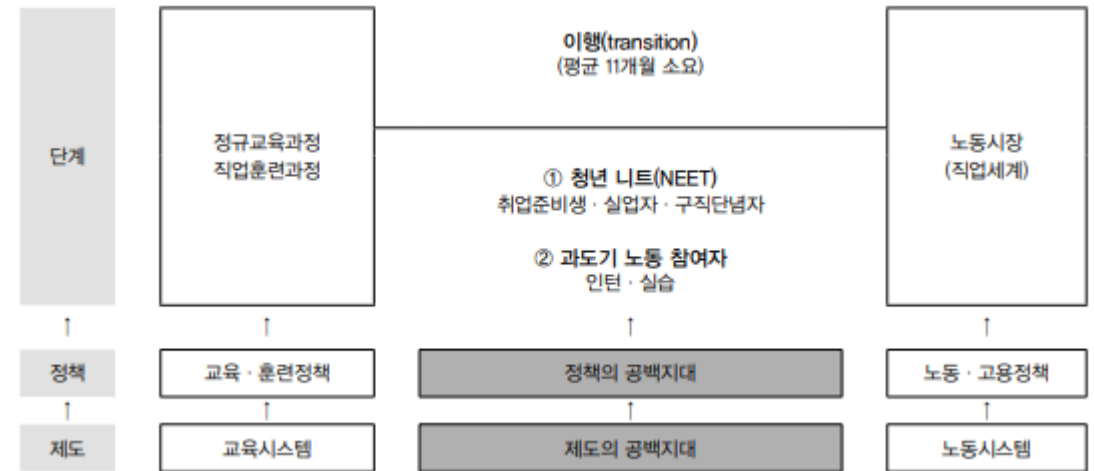
- ✓ 고용률 65.7%, 실업률 9.4%
- ✓ 고용보조지표1[(시간관련추가취업자+실업자)/경활인구]: 18.5%
- ✓ 고용보조지표2[(실업자+잠재경활인구)/확장경활인구]: 16.5%
- ✓ 고용보조지표3[(시간관련추가취업자+실업자+잠재경활인구)/확장경활인구]: 24.8%
- ✓ 니트: 18.9%

[단위: %]

구분		고용보조지표 ¹⁾			니트 비율 전 체(n=5,408)
		1 ⁰⁾	2	3	
		전 체(n=3,921)	전 체(n=5,408)	전 체(n=5,408)	
		18.5	16.5	24.8	18.9
성별	남성	15.2	15.2	20.8	15.2
	여성	21.6	17.7	28.5	22.5
연령	18세-19세	46.4	41.7	58.2	28.4
	20세-24세	35.4	30.4	45.7	21.3
	25세-29세	17.3	15.7	23.0	18.6
	30세-34세	8.3	6.3	10.7	15.4
연령대	18세-19세	46.4	41.7	58.2	28.4
	20대	23.6	21.1	31.3	19.8
	30대	8.3	6.3	10.7	15.4
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15.9	13.0	20.1	22.5
	대학 재학	43.0	36.7	55.3	18.1
	대학 졸업	13.3	12.1	17.6	18.7
	대학원 이상	17.3	11.9	22.0	10.6
가구 유형	1인가구	14.7	11.1	18.6	13.0
	청년 부부가구(자녀없음)	4.4	4.5	6.9	13.3
	청년 부부가구(자녀있음)	6.3	7.3	9.6	41.2
	부모동거 청년	21.9	19.9	29.4	18.6
	기타 청년가구	26.2	23.3	34.9	21.7

주: 1)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기준으로 분석함

청년 고용과 이행



출처: 정준영(2016: 17)

■ 노동시장으로의 진입단계 분석을 위해 ‘청년니트’ 결정요인을 분석

- ✓ 종속변수: NEET 여부 (니트아님 0, 니트임 1)
- ✓ 독립변수: 인구학적 요인(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가족배경(부모동거여부, 부모교육정도, 주관적 계층의식, 로그 가구균등화 소득, 교육 및 취업활동(취업경험, 고교유형, 직업훈련경험, 자격증 보유여부, 취창업 준비경험, 공무원 등 시험 준비 경험), 사회심리적 요인(주관적 건강상태, 교류하는 가족/친척, 교류하는 가족 친척 외 사람,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 갑자기 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 주요분석결과

- ✓ 연령이 높을수록 니트 가능성이 낮음($p < 0.1$)
- ✓ 미혼에 비해 비혼 or 유배우자의 니트 가능성이 높음 (유배우 가사/돌봄 전담자 문제)
- ✓ 고졸에 비해 2~3년제 대졸이나 대학원 이상의 니트 가능성이 낮음(4년제 대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범위에서 양 방향의 효과)

구분	회귀계수	OR	표준오차
성별(기준: 남성)	-0.012	0.988	0.187
연령	-0.049*	0.952	0.028
최종학력(기준: 고졸)			
2~3년제 대졸	-0.282	0.755	0.291
4년제 대졸	0.255	1.291	0.261
대학원 이상	-0.574	0.563	0.420
혼인상태(기준: 미혼)			
비혼	0.567**	1.763	0.216
유배우	1.007***	2.739	0.297

청년 고용과 이행

① 노동시장 진입단계

■ 주요분석결과 (계속)

- ✓ 부모와 동거하지는 않지만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 니트 가능성이 부모 동거 시보다 낮는데, 이는 경제적 지원이 가능한 부모가 있는 니트는 대체로 부모와 동거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
- ✓ 부모 학력이 고졸인 경우에 비해 중졸 이하인 경우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하게 니트가 될 가능성이 낮음(다만 비중이 매우 작음)
- ✓ 가구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니트가 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지며, 주관적 계층의식이 '상'인 경우에 비해 '하'인 경우 니트가 될 가능성이 1.8배 가까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 공무원 등 국가자격시험 준비경험이 있는 경우 니트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됨($p < 0.1$). 다만 이는 시험준비가 니트 가능성을 낮춘다기보다 상대적으로 인적자본이나 가정환경이 일정수준 이상일 때 시험준비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
- ✓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는 경우 니트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반면, 갑자기 큰 돈을 벌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니트 가능성이 낮아짐.

구분		회귀계수	OR	표준오차
가족 배경	부모동거여부(기준: 동거)			
	부모와 비동거 경제지원 없음	0.270	1.310	0.340
	부모와 비동거 경제지원 있음	-0.998***	0.369	0.236
	부모교육수준(기준: 고졸)		1.000	
	중졸이하	-0.787*	0.455	0.404
	대졸	0.216	1.242	0.181
	주관적 계층의식(기준: 상)			
	중 하	-0.272 0.582*	0.762 1.790	0.247 0.254
로그 가구균등화 소득	-0.600**	0.549	0.200	
교육 및 훈련경험	취업경험유무(기준: 없음)	0.143	1.153	0.201
	고교유형(기준: 일반고)			
	특성화고	0.181	1.198	0.281
	특목고	-0.535	0.586	0.408
	직업훈련경험(기준: 없음)	-0.097	0.908	0.306
	자격증 유무(기준: 없음)	-0.192	0.825	0.327
	취창업 준비 경험(기준: 없음)	-0.013	0.987	0.266
공무원 등 자격시험 준비경험(기준: 없음)	-0.342*	0.710	0.179	
사회심리적 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0.128	1.136	0.105
	교류하는 가족/친척 유무(기준: 없음)	0.199	1.221	0.280
	교류하는 가족/친척 외 지인 여부(기준: 없음)	-0.540	0.583	0.432
	몸이 아파 집안일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여부(기준: 없음)	1.365***	3.916	0.386
	갑자기 큰 돈을 벌릴 수 있는 사람 여부(기준: 없음)	-0.517**	0.597	0.239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사람 여부(기준: 없음)	-0.476	0.621	0.359
상수항	4.344**	76.978	1.863	
사례수		1,187		
R ²		0.1293		

- 노동시장 진입 이후 만족도 분석을 위해 ‘주된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 ✓ 종속변수: 주된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매우 불만족 1 ~ 매우 만족5)
 - ✓ 독립변수: 인구학적 요인(성별, 연령, 학력, 진로의식), 가족요인(혼인상태, 자녀유무, 가구 내 지위, 부모동거여부, 로그 가구 연소득), 일자리 특성(로그 주된 일자리 소득, 종사상지위, 정규직여부, 직장유형 및 규모, 일경험 목적 일자리 여부, 월근로시간, 수직적 미스매치(교육), 수직적 미스매치(기술), 수평적 미스매치(전공)), 노동환경(직장내 괴롭힘 경험, 위험한 근로환경 경험, 고객에게 불쾌감 경험)

▪ 주요분석결과

- ✓ 여성이 남성보다 만족도가 낮음
- ✓ 고졸에 비해 대학재학중인 경우 만족도 높음(기대수준 차이)
- ✓ 진로에 대한 구체적 희망이 있는 경우 일자리 만족도가 높아 ($p < 0.1$), 일자리의 의미가 갖는 중요성을 시사
- ✓ 가족 요인 중에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일자리 만족도가 높음 (기타 요인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개인 요인	성별(기준: 남성)	-0.098***	0.031
	연령	-0.001	0.005
	최종학력(기준: 고졸이하)		
	대학재학	0.142*	0.060
	대학졸업	0.006	0.038
	대학원이상	-0.112	0.071
가족 요인	진로의식(기준: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 없음)	0.051*	0.030
	자녀유무(기준: 없음)	-0.008	0.071
	혼인상태(기준: 미혼)		
	비혼	-0.043	0.041
	유배우	0.031	0.060
	가구내지위(기준: 가구주)		
	가구생계기여	0.084	0.056
	가구생계비기여	0.007	0.063
	부모동거여부(기준: 동거)		
	부모와 비동거 경제지원 없음	0.073	0.085
부모와 비동거 경제지원 있음	0.062	0.061	
로그 가구균등화 소득	0.099***	0.026	

■ 주요분석결과 (계속)

- ✓ 본인 일자리의 객관적 요인으로는 소득이 높을수록($p < 0.1$), 정규직일수록 만족도가 높으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근무할 경우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음.
- ✓ 수직적·수평적 미스매치 역시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직무가 교육수준에 비해 낮다고 인식할수록(수직적 미스매치) 만족도가 낮아지며, 전공과 직무가 맞다고 여길수록(수평적 미스매치) 만족도가 높아짐.
- ✓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위험한 근로환경 경험, 고객의 욕설 및 폭언 등 불쾌감 경험은 유의하게 일자리 만족도를 낮춤.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일자리 요인	로그 본인 주된 일자리 소득	0.031 ^{***}	0.016
	고용형태(기준: 비정규직)	0.110 ^{**}	0.040
	일자리 유형(기준: 민간대기업)		
	공공부문(공무원)	0.072	0.061
	민간중소기업(5~299)	-0.125 ^{**}	0.042
	소규모사업체(5인 미만)	-0.061	0.054
	기타(프리랜서 등)	-0.091	0.092
	일경험여부(기준: 일경험아님)	0.037	0.050
	월근로시간	0.000	0.000
	교육수준 미스매치(기준: 알맞음)		
	낮다	-0.250 ^{***}	0.061
	높다	0.059	0.131
	기술수준 미스매치(기준: 알맞음)		
낮다	-0.098	0.062	
높다	-0.003	0.109	
전공 미스매치(기준: 맞지 않음)			
어느 정도 일치	0.020	0.036	
일치	0.109 [*]	0.054	
일자리 경험	직장내 괴롭힘 경험(기준: 없음)	-0.411 ^{***}	0.074
	위험한 근로환경 경험(기준: 없음)	-0.561 ^{***}	0.071
	고객의 욕설, 폭언 등 경험(기준: 없음)	-0.377 ^{***}	0.053
상수항		2.721 ^{***}	0.260
사례수		2,864	
R ²		0.206	

- 노동시장 진입 정착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 ✓ 종속변수: 현 직장에서의 이직의사(없다 0, 있다 1)
 - ✓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일자리 만족도 변수와 동일하며, 주된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추가

▪ 주요분석결과

- ✓ 이직의사는 남성일수록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낮음
- ✓ 고졸이하에 비해 학력이 높을수록 이직의사가 높음
- ✓ 진로의식이 있는 경우 이직의사가 높음
- ✓ 가족 배경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가운데, 가구 생계비에 기여하지 않는 가구원일수록 이직의사가 낮음

구분		회귀계수	OR	표준오차	
개인 요인	성별(기준: 남성)	0.4470***	1.564	0.1140	
	연령	-0.0278+	0.973	0.0167	
	최종학력(기준: 고졸이하)	대학재학	0.3734+	1.453	0.2128
		대학졸업	0.3882**	1.474	0.1467
		대학원이상	0.7081**	2.030	0.2729
	진로의식(기준: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 없음)	0.7879***	2.199	0.1103	
가족 요인	자녀유무(기준: 없음)	-0.3667	0.693	0.3303	
	혼인상태(기준: 미혼)	비혼	0.0061	1.006	0.1412
		유배우	-0.3649	0.694	0.2965
	가구내지원(기준: 가구주)	가구생계기여	-0.1972	0.821	0.2101
		가구생계비기여	-0.5468*	0.579	0.2347
		부모동거여부(기준: 동거)	부모와 비동거 경제지원 없음	-0.1160	0.890
		부모와 비동거 경제지원 있음	-0.2638	0.768	0.2273
	로그 가구균등화 소득	-0.0091	0.991	0.0955	

■ 주요분석결과 (계속)

- ✓ 본인 소득은 이직의사에 부적(-) 방향의 부호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비해 이직의사가 낮음
- ✓ 민간대기업에 비해 오히려 공공부문, 민간중소기업의 이직의사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 근로시간이 길수록 이직의사가 낮음
- ✓ 교육수준 대비 직무수준이 낮거나($p < 0.1$), 전공과 직무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직의사가 높아짐
- ✓ 이직의사에는 직무환경의 영향이 매우 큰데, 직장내 괴롭힘(3.3배), 위험한 근로환경(2.2배), 고객의 욕설과 폭언(1.8배)은 이직의사를 높임
- ✓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직의사는 낮아짐

구분		회귀계수	OR	표준오차
일자리 요인	로그 본인 주된 일자리 소득	-0.0312	0.969	0.0524
	고용형태(기준: 비정규직)	-0.5037***	0.604	0.1366
	일자리 유형(기준: 민간대기업)			
	공공부문(공무원)	-0.4587+	0.632	0.2479
	민간중소기업(5~299)	-0.3177*	0.728	0.1592
	소규모사업체(5인 미만)	-0.5454**	0.580	0.1890
	기타(프리랜서 등)	-0.2009	0.818	0.3601
	일경험여부(기준: 일경험아님)	0.1557	1.168	0.1683
	월근로시간	-0.0028**	0.997	0.0009
	교육수준 미스매치(기준: 알맞음)			
	낮다	0.3517+	1.421	0.2139
	높다	-0.5790	0.560	0.4697
	기술수준 미스매치(기준: 알맞음)			
낮다	0.3621	1.436	0.2360	
높다	0.3526	1.423	0.3537	
전공 미스매치(기준: 맞지 않음)				
어느 정도 일치	-0.4338***	0.648	0.1348	
일치	-0.1483	0.862	0.1838	
일자리 경험	직장내 괴롭힘 경험(기준: 없음)	1.1722***	3.229	0.3399
	위험한 근로환경 경험(기준: 없음)	0.8075***	2.242	0.2401
	고객의 욕설, 폭언 등 경험(기준: 없음)	0.6075***	1.836	0.1707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	-1.4046***	0.245	0.0927
상수항		5.5350***	253.408	1.0106
사례수		2,864		
Pseudo R ²		0.3126		

청년 고용과 이행

■ 청년의 고용과 이행: 주요함의

- ✓ 일자리 진입 단계에서 나타나는 청년의 좌절은 주로 가족배경에 따른 격차가 가장 큰 영향요인
- ✓ 반면, 교육훈련 활동 관련 경험은 대개 유의성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교육훈련을 통해 인적자본 축적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좀 더 종합적인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시사함
- ✓ 청년이 자신의 진로에 관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및 이와 관련된 스킬 미스매치 여부는 일자리 만족도와 이직의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진로설정 및 일자리 선택과정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시사함
- ✓ 청년의 노동시장 정착에서는 소득보다 오히려 일터의 환경(괴롭힘, 위험한 근로환경, 고객으로 인한 불쾌감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터의 민주주의” 요소가 청년세대에게 매우 중요함을 시사

청년의 불안정



청년의 불안정

■ 청년의 불안정을 분석하기 위해 청년이 느끼는 삶의 안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 ✓ 종속변수: 주관적 삶의 안정감(전혀 그렇지 않다 1 ~ 매우 그렇다 5점)
- ✓ 독립변수: 개인요인(성별, 연령, 학력), 가족요인(혼인상태, 자녀유무, 부모동거여부, 로그 가구균등화 소득), 일자리 요인(종사상지위, 정규직여부, 직장유형 및 규모, 일경험 목적 여부, 월근로시간, 주된 일자리 만족도, 이직의사), 경제활동 요인(경제활동상태, 로그 본인연소득, 취업경험 여부), 생활조건(코로나 실직 또는 소득감소 경험, 주거유형, 본인 부채 규모), 사회적 자본(주관적 건강상태, 교류하는 가족/친척, 교류하는 가족 친척 외 사람,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 갑자기 큰 돈을 벌릴 수 있는 사람,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 ✓ 청년전체에 대한 모형(모델1)과 일자리 요인을 추가한 취업 청년 모형(모델2)로 구분하여 분석

■ 주요분석결과

- ✓ 성별은 두 모델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며, 연령은 두 모델 모두에서 높을수록 안정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 학력은 전체 청년에서는 고졸 대비 대학 재학중이나 대학원 이상의 안정감이 높았지만, 대졸자는 유의한 차이 없음
- ✓ 취업자 모형에서는 학력이 유의하지 않음 → 학력은 취업을 거쳐서 개인의 안정감에 영향을 줄 가능성

구분		모델1		모델2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개인 요인	성별(기준: 남성)	-0.025	0.030	0.008	0.036
	연령	-0.011*	0.005	-0.010*	0.006
	최종학력(기준: 고졸이하)				
	대학재학	0.099*	0.050	0.113	0.069
	대학졸업	-0.019	0.038	-0.060	0.045
	대학원이상	0.142*	0.073	0.061	0.092

청년의 불안정

■ 주요분석결과 (계속)

- ✓ 가족배경에서는 비혼자가 두 모델 모두에서 유의하게 불안정
- ✓ 가구 내 지위에서는 가구 생계비에 기여하지 않는 가구원이 두 모델에서 유의하게 더 안정적
- ✓ 부모 동거 여부는 모델1에서만 부모와 동거중이 아니면서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 동거하는 경우보다 안정적
- ✓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안정적
- ✓ 모델1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안정적이지만, 일자리 요인들이 통제된 모델2에서는 유의하지 않음
- ✓ 모델1에서 비재학/비취업자는 유의하게 불안정
- ✓ 일자리 요인 중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불안정이 확인됐으며, 일자리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직의사가 낮을수록 안정적

구분		모델1		모델2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가족배경	재녀유무(기준: 없음)	0.011	0.072	0.056	0.089
	혼인상태(기준: 미혼)				
	비혼	-0.185***	0.045	-0.203***	0.053
	유배우	0.054	0.070	0.046	0.085
	가근내지원(기준: 가구주)				
	가구생계기여	0.028	0.053	-0.037	0.061
	가구생계비기여	0.104*	0.061	0.151*	0.072
경제활동요인	부모동거여부(기준: 동거)				
	부모와 비동거 경제지원 없음	0.147	0.093	0.059	0.123
	부모와 비동거 경제지원 있음	0.165**	0.059	0.080	0.071
	로그 가구균등화 소득	0.118***	0.027	0.084**	0.032
	로그 본인 연소득	0.097***	0.026	0.062	0.041
일자리요인	경제활동상태(기준: 취업)				
	실업	-0.016	0.066		
	재학중	-0.025	0.057		
	비재학 비취업	-0.160*	0.072		
일자리 경험 여부(기준: 경험없음)	-0.069*	0.031			
일자리요인	고용형태(기준: 비정규직)			0.065	0.049
	일자리 유형(기준: 민간대기업)				
	공공부문(공무원)			-0.003	0.077
	민간중소기업(5~299)			-0.092*	0.048
	소규모사업체(5인 미만)			-0.160**	0.059
	기타(프리랜서 등)			-0.167	0.105
	일경험여부(기준: 일경험아님)			0.048	0.058
	월근로시간			0.000	0.000
일자리만족도			0.263***	0.030	
이직의사			-0.173***	0.047	

청년의 불안정

■ 주요분석결과 (계속)

- ✓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및 소득에 영향을 받은 경우 두 모델 모두에서 뚜렷한 안정성 하락
- ✓ 월세나 기타 주거형태에 거주하는 경우 자가 거주자에 비해 안정감이 낮음
- ✓ 부채가 높을수록 안정감이 낮음
- ✓ 모델1에서는 모든 사회적 자본 요소들이 안정감을 높이지만 모델2에서는 교류하는 가족/친척 외 지인 여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

구분		모델1		모델2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생활 환경 요인	코로나 고용소득 영향(기준: 영향없음)	-0.268***	0.034	-0.182***	0.043
	주거유형(기준: 자가)				
	전세	-0.034	0.040	-0.013	0.050
	월세/기타	-0.210***	0.054	-0.119*	0.063
	본인 부채 규모(기준: 부채 없음)				
	500만원 미만	-0.272***	0.063	-0.253***	0.074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0.165*	0.081	-0.137	0.086
	1,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0.323***	0.062	-0.259***	0.067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141*	0.083	-0.160*	0.093
1억원 이상	-0.127*	0.063	-0.076	0.070	
사회적 자본	교류하는 가족/친척 유무	0.123*	0.049	0.097	0.064
	교류하는 가족/친척 외 지인 여부	0.207*	0.104	0.283*	0.113
	몸이 아파 집안일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여부	0.161*	0.064	0.112	0.076
	갑자기 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여부	0.076*	0.044	0.068	0.058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여부	0.199*	0.081	0.141	0.111
상수항	1.340***	0.259	1.005**	0.350	
사례수	4,204		2,751		
R ²	0.141		0.211		

청년 고용과 이행

■ 청년의 불안정: 주요함의

- ✓ 학력은 청년의 안정감에 영향을 미치지만, 취업자의 경우 일자리 특성들이 통제됐을 때 영향을 주지 않았음
- ✓ 비혼이거나, 가구 생계비에 기여해야 하는 경우 안정감이 낮아져 이행과업이 안정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
- ✓ 부모와의 동거 여부는 일종의 경제적 요인으로서 청년의 안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가구소득에 따른 안정감 차이로도 확인됨
- ✓ 개인소득은 안정감에 영향을 미치지만, 일단 취업한 경우 기업규모 및 유형, 일자리 만족도와 이직의사 등의 요인이 안정감에 대한 영향이 더 강한 것으로 보임
-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소득 요인이 청년의 불안정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보임
- ✓ 주거, 부채, 사회적 자본 역시 개인의 안정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적 자본의 경우 취업 청년에서는 유의성이 상당히 낮아지는 경향

코로나19와 청년



코로나19와 청년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어떤 청년들이 더 많이 받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영향요인을 분석

✓ 종속변수: 코로나19 경제적 영향* 경험 여부(없음 0, 있음 1)

* 아르바이트 구직, 실직, 근로시간 감소, 소득 감소, 사업장 폐업 또는 폐업 고려 중 한 가지 이상

✓ 독립변수: 개인요인(성별, 연령), 가족요인(혼인상태, 자녀유무, 가구 내 지위, 부모동거 여부, 로그 가구균등화 소득), 교육 요인(학력, 고교유형, 직업훈련경험), 일자리 요인(로그 본인 연소득, 고용형태, 직장유형 및 규모, 일경험 목적 여부, 월근로시간)

■ 주요분석결과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개인요인이나 가족 요인은 대부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에 비해 동거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경우 코로나로 인한 부정적 경험이 1.66배 더 많음($p < 0.1$)

구분		회귀계수	OR	표준오차
개인 요인	성별(기준: 남성)	0.167	1.182	0.104
	연령	-0.011	0.989	0.017
가족 요인	자녀유무(기준: 없음) 혼인상태(기준: 미혼)	-0.122	0.886	0.263
	비혼	0.179	1.196	0.131
	유배우	0.036	1.037	0.222
	가구내지위(기준: 가구주)			
	가구생계기여	0.110	1.117	0.175
	가구생계비기여	-0.285	0.752	0.204
	부모동거여부(기준: 동거)			
	부모와 비동거 경제지원 없음	0.508*	1.663	0.275
부모와 비동거 경제지원 있음	0.107	1.113	0.191	
로그 가구균등화 소득	-0.150	0.861	0.095	

코로나19와 청년

■ 주요분석결과 (계속)

- ✓ 최종학력이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특목고/자사고 졸업은 오히려 부정적 영향이 나타남 (단, 사례수는 많지 않음)
- ✓ 직업훈련을 받아본 경험 역시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역방향 인과관계일 가능성이 있음(코로나19로 인한 실질 후 직업훈련 참여 등)
- ✓ 일자리 요인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정규직일수록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경험을 할 확률이 낮았으며, 대기업 종사자에 비해 소규모사업체 종사자의 부정적 경험 가능성이 1.567배로 높았음($p < 0.1$)
- ✓ 월 근로시간이 긴 노동자일수록 부정적 경험 확률이 낮음

구분		회귀계수	OR	표준오차
교육 요인	최종학력(기준: 고졸이하)			
	대학재학	0.175	1.191	0.196
	대학졸업	0.014	1.014	0.138
	대학원이상	-0.058	0.943	0.240
	고교유형(기준: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자사고	0.114 0.587**	1.121 1.798	0.152 0.195
직업훈련(기준: 경험없음)				
	현재받고 있음	-0.572*	0.564	0.295
	받아본 적 있음	-0.624***	0.536	0.118
일자리 요인	로그 개인소득	-0.298**	0.742	0.113
	고용형태(기준: 비정규직)	-0.759***	0.468	0.124
	일자리유형(기준: 민간대기업)			
	공공부문(공무원)	-0.333	0.717	0.208
	민간중소기업(5~299)	0.056	1.057	0.145
	소규모사업체(5인 미만)	0.301*	1.351	0.173
	기타(프리랜서 등)	0.449	1.567	0.308
	아르바이트 등 일경험여부(기준: 일경험아님)	0.355*	1.426	0.149
월근로시간	-0.002**	0.998	0.001	
상수항		3.885	48.654	1.004
사례수			2,727	
Pseudo R ²			0.137	

코로나19와 청년

■ 코로나19가 청년의 우울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영향요인을 분석

- ✓ 종속변수: 자기기입식 우울척도(CES-D) 0~60점
- ✓ 독립변수: 개인요인(성별, 연령), 가족요인(혼인상태, 자녀유무, 가구 내 지위, 부모동거 여부, 로그 가구균등화 소득), 교육 요인(학력, 고교유형, 직업훈련경험), 경제활동(경제활동상태, 로그 본인 연소득), 일자리 요인(로그 본인 연소득, 고용형태, 직장 유형 및 규모, 일경험 목적 여부, 월근로시간), 코로나19 영향(감염 및 건강, 학습, 이행, 고용 및 소득, 사회적 관계), 생활조건(주거유형, 본인 부채 규모), 사회적 자본(주관적 건강상태, 교류하는 가족/친척, 교류하는 가족 친척 외 사람, 몸이 아파 집안 일을 부탁할 사람, 갑자기 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 ✓ 청년전체에 대한 모형(모델1)과 일자리 요인을 추가한 취업 청년 모형(모델2)로 구분하여 분석

■ 주요분석결과

- ✓ 두 모델 모두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 미혼에 비해 비혼의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우울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구분		모델1		모델2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개인 요인	성별(기준: 남성)	2.281***	0.317	2.100***	0.381	
	연령	0.010	0.053	-0.062	0.066	
가족 요인	자녀유무(기준: 없음)	-0.902	0.797	-0.447	0.927	
	혼인상태(기준: 미혼)	비혼	2.183***	0.457	2.289***	0.558
		유배우	-0.666	0.725	-0.564	0.765
	가구내지위(기준: 가구주)	가구생계기여	0.013	0.644	-0.504	0.740
		가구생계비기여	0.118	0.725	0.240	0.836
		부모동거여부(기준: 동거)				
	부모와 비동거 경제지원 없음		-1.285	0.998	-1.139	1.198
		부모와 비동거 경제지원 있음	-1.256*	0.732	-1.276	0.868
	로그 가구균등화 소득	-1.060**	0.369	-1.474***	0.429	

코로나19와 청년

■ 주요분석결과 (계속)

- ✓ 두 모델 모두에서 최종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 고졸에 비해 높은 우울을 보였으며, 모델1에서는 특목고 졸업자가 일반고 졸업자보다 높은 우울을 보여서 고학력자의 우울 가능성
- ✓ 모델1에서는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청년에 비해 현재 받고 있는 청년에서는 높은 우울이, 과거경험 청년에서는 낮은 우울이 나타남
- ✓ 학력과 직업훈련 모두 모델2에서는 유의하지 않음
- ✓ 모델1에서는 취업자에 비해 비재학/비취업 상태의 현저히 높은 우울이 확인된 반면, 개인소득은 유의하지 않음
- ✓ 모델2에서는 대기업 종사자에 비해 공공부문 종사자의 낮은 우울이 확인됨

구분		모델1		모델2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교육 요인	최종학력(기준: 고졸이하)				
	대학재학	-0.264	0.536	-0.337	0.798
	대학졸업	0.336	0.413	0.783	0.527
	대학원이상	1.632*	0.785	2.314*	1.039
	고교유형(기준: 일반고)				
	특성화고	-0.344	0.517	-0.277	0.608
	특목고	1.843**	0.621	1.139	0.800
직업훈련(기준: 경험없음)					
	현재받고 있음 받아본 적 있음	1.846* -0.896*	1.040 0.421	2.083 -0.538	1.318 0.469
경제활동 요인	경제활동상태(기준: 취업)				
	실업	-0.499	0.716		
	재학중	0.700	0.635		
	비재학 비취업	3.034***	0.878		
	로그 개인연소득	-0.356	0.324	0.429	0.493
일자리 요인	고용형태(기준: 비정규직)			-0.136	0.499
	일자리유형(기준: 민간대기업)				
	공공부문(공무원)			-1.316*	0.763
	민간중소기업(5~299)			-0.620	0.570
	소규모사업체(5인 미만)			-0.753	0.710
	기타(프리랜서 등)			1.792	1.352
	일경험여부(기준: 일경험아님)			0.784	0.646
월근로시간			0.005	0.004	

코로나19와 청년

■ 주요분석결과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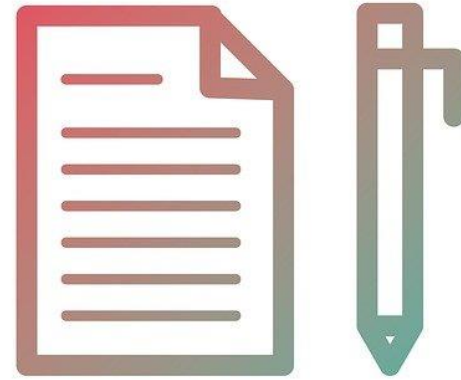
- ✓ 두 모델 모두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부정적 경험들은 대부분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보여 “코로나 블루” 현상을 확인
- ✓ 자가거주자에 비해서는 월세/기타 거주자가, 부채가 없는 경우에 비해서는 부채가 있는 경우가 높은 수준의 우울을 보임
- ✓ 사회적 자본 역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모델2의 가족/친척, 두 모델 모두에서 가족/친척 외 지인, 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모델1의 아플때 집안일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우울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모델1		모델2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코로나 요인	코로나로 인한 고용소득 영향(기준: 없음)	1.048**	0.358	0.770*	0.463
	코로나로 인한 건강 영향(기준: 없음)	3.456**	1.221	3.764*	1.471
	코로나로 인한 학습 영향(기준: 없음)	0.498	0.463	1.728*	0.687
	코로나로 인한 이행 영향(기준: 없음)	3.656***	0.487	3.543***	0.546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관계 영향(기준: 없음)	3.298***	0.322	2.748***	0.384
생활 조건	주거유형(기준: 자기)				
	전세	0.550	0.407	0.691	0.491
	월세/기타	1.667**	0.553	1.775**	0.681
	본인 부채 규모(기준: 부채 없음)				
	500만원 미만	1.994**	0.750	2.049*	0.912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2.242*	0.968	1.501	1.003
	1,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4.358***	0.730	4.366***	0.842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002	0.709	0.944	0.807	
1억원 이상	3.015***	0.642	3.266***	0.785	
사회적 자본	교류하는 가족/친척 유무	-0.867	0.581	-1.211*	0.691
	교류하는 가족/친척 외 지인 여부	-8.136***	1.434	-8.470***	1.615
	몸이 아파 집안일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여부	-1.327*	0.765	-1.429	0.920
	갑자기 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여부	0.762	0.478	0.685	0.597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여부	-4.700***	1.153	-3.987**	1.501
상수항	29.770***	3.200	28.503***	4.385	
사례수	4,103		2,697		
R ²	0.254		0.255		

■ 코로나19와 청년: 주요함의

- ✓ 코로나19가 청년의 고용 및 소득에 미친 영향은 일자리의 유형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어 노동시장 분절구조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 ✓ 코로나19가 청년의 고용 및 소득에 미친 영향에서 그 밖의 개인 및 가족요인의 차이는 적은 것으로 확인되어, 청년층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음.
- ✓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고용·소득, 이행, 사회적 관계의 변화는 청년의 정신건강에 상당히 뚜렷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
- ✓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 외에도 가구소득, 경제활동상태, 주거, 부채, 사회적 자본의 영향이 확인되어, 코로나19라는 충격이 동일할지라도 원래의 주·객관적 상황(이른바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따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함.

실용
영어



■ 본 연구의 주요 함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 청년의 니트화에 대한 가장 뚜렷한 변수는 가족배경인 것으로 나타나 청년정책이 청년 집단의 내부적 격차에 더 많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 이행기 청년은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의 일이 앞으로의 경로에서 의미가 있는지?’가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나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와 취업과정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시사
- ✓ 청년들은 소득이나 고용형태 등 일자리의 객관적 조건 외에도 일자리에서의 경험, 특히 흔히 ‘갑질’로 표현되는 일터의 환경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파악됨
- ✓ 청년이 느끼는 안정감에서 중요한 것은 학력보다는 일자리 특성이며, 이 점은 결국 노동시장에서의 격차 축소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학력차별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임을 시사
- ✓ 가족배경은 청년의 안정감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불리한 환경 하의 청년들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시사
- ✓ 코로나19 요인은 청년의 안정감에도 중요한 영향

- 본 연구의 주요 함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계속)
 - ✓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개인 및 가족배경을 떠나 다수의 청년들이 경험한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하에서 불리한 위치의 청년일수록 더 많은 경제적 영향을 받음
 - ✓ 코로나19의 영향은 청년의 우울에 뚜렷한 영향을 주었음
 - ✓ 코로나19로 인한 마음건강 측면의 영향은 코로나19 경험 외에 개인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요소들(가족배경, 생활환경, 경제활동 상태 등)에 따라 우울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음
 - ✓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은 상당히 뚜렷한 성차가 확인됨

감사합니다.